

만남

2017 7월
통권 150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첫 번째 사제와 3349번째 사제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을 묵상하는 영혼	4
교리	신앙의 재발견 4~6	8
기도 소개	휴가와 방학기간에 드리는 기도	11
영적 상담		12
나눔		14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선교 : 냉담교우들

냉담 교우들이 우리의 기도와 복음의 증언으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제와 삼천삼백사십구 번째 사제

7월 5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주일에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7월 2일, 주일로 옮겨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입니다. 그래서 문득 나는 과연 몇 번째일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3349. 이것이 저의 번호였습니다. 줄을 선다면 김대건 신부님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뒷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길지 않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사제성소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모두가 피를 흘려 믿음을 지켜온 순교자들의 곳곳한 신앙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제성소가 그리 많은 편도 아닙니다. 해마다 전국의 교구를 다 합친다면 100명 이상이 사제로 서품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선교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때는 공부하는 일도 정말 어려웠고, 한국에서 사목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반면, 지금은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목하는 일이 보람을 주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많은 신자분들에게 다가서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3349번째라는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제로서 얼마만큼 첫 번째 사제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느님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을 제대로 닮지 않으면 숫자란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로만 머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제는 언제나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시편 63,2-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8장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주님! 목말라 애타게 당신을 찾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63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3, 2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3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4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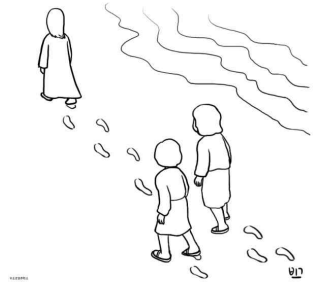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5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 6 제 영혼이 비계와 기름을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 7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 8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 9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애타게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채울수록 텅 비어 가니, 많은 것을 움켜쥐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히면서 오히려 실망과 분노와 두려움을 느꼈다.”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때 밤새 술을 마시며 궤변을 즐기고, 온갖 쾌락과 열정을 누리려고 세상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오만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인생의 고뇌와 혼란 속에서 머튼이 마침내 받아들인 가톨릭 신앙과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환희를 안겨 줍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세상에서 이토록 놀라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비참하고 소란스럽고 잔혹한 이 지상에, 침묵과 고독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로버트 엘스버그,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인간은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시편 34,9)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 밖에 없습니다.”(시편 16,2)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8장 “이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2,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 하느님 나라의 비밀번호 4627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인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요한 20,31)입니다.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천 년 이상에 걸쳐 기록된 성경은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뉩니다.

구약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옛 계약 곧 ‘구약’이라고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인정하는 구약성경은 모두 46권으로 내용에 따라서 창세, 탈출, 레위, 민수, 신명기로 구성된 오경과 여호수아, 판관, 룯, 사무엘, 열왕, 역대, 에즈라, 느헤미야, 토빗, 유딧, 에스테르, 마카베오기의 역사서, 욥,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 집회서로 이루어진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바룩, 에제키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야, 요나, 미카, 나훔, 하바쿱, 스바니야, 하까이, 즈카르야, 말라키서가 포함되는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기록된 것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모두 27권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네 복음서인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삶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초대 교회 공동체들에게 신앙에 관한 보낸 사도들의 편지로 로마와 코린토, 갈라티아, 에페소, 필리피, 콜로새,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과 티모테오, 티토, 필레몬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바오로 서간을 비롯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서간과 세상 종말을 미리 내다보는 요한 묵시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긴 역사가 시작되고, 신약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과 같다.”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으며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참되고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5.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고백 - 저는 믿나이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로마 10,9)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이나 양심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게 응답하고, 그분의 말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 그분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계시하셨던 모든 내용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요한 9,38),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요한 20,28)과 같이 단순한 신앙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신앙고백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확고한 형태가 없다면 신앙의 내용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고백의 양식을 구체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문구인 신경(信經, 라틴어 Credo)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자들은 공통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교회가 바치는 믿음의 고백인 신경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더 짧고 오래된 신경이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개최한 대공의회들(니케아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공의회(381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풍부하게 표현된 신앙고백문으로 오늘날까지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신자들의 공통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는 본래 미사 전례 때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는 사도신경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서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믿음”(티토 1,4)을 주님께 자주 고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 한 분이신 하느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신명 6,4) 하느님께서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유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가짜 신들을 멀리하고 하느님 당신께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이사 45,22)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라는 의미의 거룩한 이름 ‘야훼(YHWH)’를 알려주셨습니다. 숨어 계시지만 존재하시는 신비로써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늘 곁에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 대신 ‘주님(ADONAI)’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찬미하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로마 10,9 참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전능을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보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자애와 진실이 충만”(탈출 34,6)한 분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사랑이십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만물은 모두 선하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고 하느님의 숨결을 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헛된 욕망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곁을 떠남으로써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 15,16 참조) 이 부름에 응답하는 길은 사랑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터전을 이루어 주는 자연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휴가와 방학기간에 드리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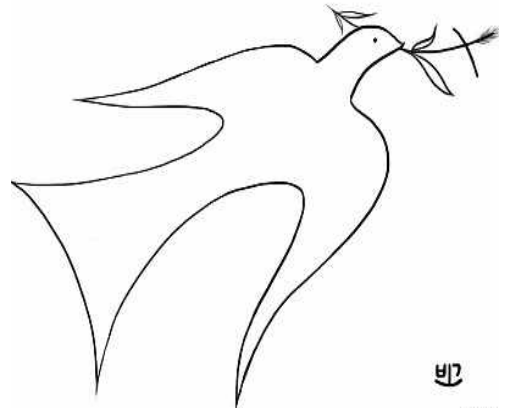
안식을 창조하신 하느님,
그 안식을 누리며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고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뜻과 보호하심 안에서
온전히 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휴가와 방학기간에도
또 다른 무엇을 채워 넣고
온전히 쉬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 가운데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며
순간순간을 음미하도록 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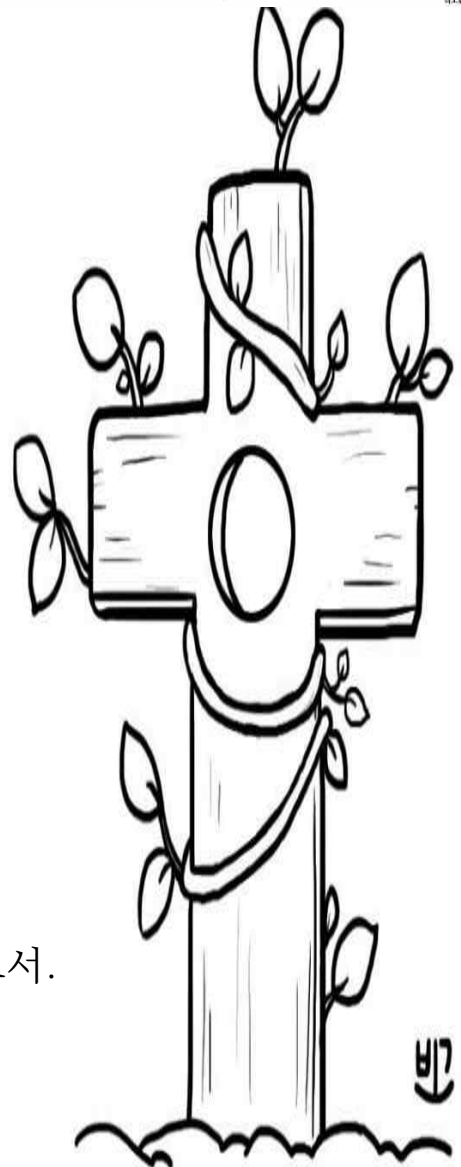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세상의 요구들과 사람들의 기대들을
온전히 비워내고
휴가와 방학기간 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품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 인생을 향한 소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빈

백오로영문판



빈

백오로영문판

질문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본당에서 사목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신부님과 후임 신부님의 본당 운영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임 신부님께서 만들어놓은 사목 프로그램들을 후임 신부님께선 모두 폐지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셔서 사목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목위원을 그만두는 이들도 생기구요. 좋은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신부님의 속내와 의도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이찬 신부님(성 골롬반외방선교회 · 다솜터심리상담소장)

평신도로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형제님을 보시고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방향이 바뀌면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일의 통일성이 유지되면 좋을 텐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전체의 방향성이 바뀌면 어렵습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 모습이 그런 면에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당에 사목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은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00항, 참조)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목자 또한 스스로 교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자기 정화와 쇄신에 매진하면서 본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간적인 한계로 방향성에 대한 혼돈을 지니고 본당 사목을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본당 교우들이 책임과 연대의 정신을 갖고 사목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티칸공의회 문헌 중 사목헌장에 반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 정치, 종교 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들과 더욱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사목헌장 28항 참조)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적 불편감이 우선하고 자존심의 손상을 얻기 쉽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면 적대감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당의 활성화라는 인식을 양적인 판단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당 사업이 양적인 팽창을 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질적인 성장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본당 행사의 성공과 실패를 참여자의 숫자 등 양적 기준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하느님께 포용의 힘을 청하시면서 평신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목위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문헌출처※

나무 심는 양치기(장훈철 신부님)

몇 주일 전 프랑스 작가 장지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 책은 40년 동안 프랑스의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 거대한 숲으로 바뀌게 한 늙은 양치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을 지닌 이 늙은 양치기는 해발 1200미터의 황량한 황무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없어서 이 땅이 죽어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매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두 번이나 힘 싸일 때도 그 늙은 양치기는 계속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정부의 산림 감시원이 양치기의 노력을 모르고 이 고산지대에 저절로 천연 숲이 생겼다고 놀라 정부에 보고했고 정부 대표단이 시찰하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아랑곳없이 양치기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쟁으로 숲이 망가지는 위협도 있었고, 잘못 심은 나무들은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기 시작한지 40년이 지나, 1947년 엘제아르 부피에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치기 덕분에 처음 12가구가 살던 이 마을은 이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은 글을 맺었습니다.

“한사람의 오직 육체적, 정신적 힘만으로 홀로 황무지에서 이런 가난한 땅을 이룩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해낸 배운 것 없는 농부에게 크나큰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선한사람은 선한마음을 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홍수에도 끄떡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가식적이며, 드러난 것에 예민해진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익이 앞서는 현실을 탓하면서도 나 역시도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앞장섰던 마음을 반성하며 양치기 목동이 세상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봅시다.

다른 이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세상을 향한 착한 마음을 이제 숨기지 말고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을뿐더러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인 credo(저는 믿나이다)라는 말은 core(마음)와 dare(주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위의 중심인 인간의 마음은 생각으로나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낼 때가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심는 양치기의 선한 노력이 세상의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였듯이 우리의 작지만 선한 마음의 시작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에 스 텔	우 영 주	크리스토퍼	김 영 기
3일	토 마 스 (St. Thomas)	강 신 행 이 정 수 홍 종 각	25일 (St. Christopher) 야 고 보	Rabe 김 형 웅
12일	베로니카 (St. Veronica)	김 매 자 육 종 인 박 성 아	26일	안 나 (St. Anna) 김 순 임 심 은 희 최 경 숙 이 정 은
20일	(구약) 엘 리 야	이 동 윤		
21일	다 니 엘 (St. Daniel)	심 동 근 김 무 송 김 선 일		아 나 벨 (St. Annabel) 한 선 지 정 정 숙
22일	막달레나 (St. Magdalena)	김 원 자	28일	빅 토 르 (St. Viktor I) 허 두 욱
24일	크리스티나 (St. Christina)	이 정 욱 문 귀 욱	29일	마 르 타 (St. Martha) 김 정 숙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 마 스 (St. Thomas)	탁준성(H)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12일	베로니카	최희정(B)	26일	안 나 (St. Anna)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김혜림(B)	31일	이나시오	목진만(H)

❖ 7월 성가번호

7월	입 당	봉 헌	성 제	파 견
2일	287	217	163	287(4)
9일	62	221	172	452
16일	416	211	169	2
23일	가 쪽 미 사			
30일	32	511	197	453

❖ 7월 미사 전례 봉사자 ❖

7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창년회
9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주일 학교	요셉 마리아회
16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그네스)	주일 학교	1구역
23일	가 족 미 사			2구역
30일	정명옥(살로메) 김애란(세실리아)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5월 28일	6월 4일	6월 11일	6월 18일
계(€)	199.37	343.00	280.53	249.67
2차 헌금		183.70		

❖ 자진헌납금 ❖

2017년 5월 22일 — 2017년 6월 18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김기연, 김민수, 한규호, 이종하,
 이정은, 서세원, 최순남, 최승진,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강순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종지, 이공종,
 이석우, 이정수, 이수용,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현영애,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배성우, 문경희

구좌입금 :

최성자, 이영원, 허채열, 김부남, 최화영, 백정선, 이철우,
 홍경영, 허두욱,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오옥수,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예비자 교리반은 7월 2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주일미사 때는 유아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2. 7월 8일 토요일 10시 30분,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Hauptkirche St. Katharinen에서 스테판 헤세 대주교님을 모시고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7월부터 가정방문과 축복하는 예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에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제마실 물만, 혹시라도 청하게 되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식사나 음식에 대해서는, 마음만큼은 정말 고맙게 받겠지만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4. 연령회에서는 7월 17일 월요일에 소풍을 다녀옵니다. 연령회 회원들이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길 기도드립니다.

5. 7월 28일(금)에서 7월 30일(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청년회가 MT(Membership Training)를 다녀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7월 중에 휴가나 방학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나 방학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밝고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성당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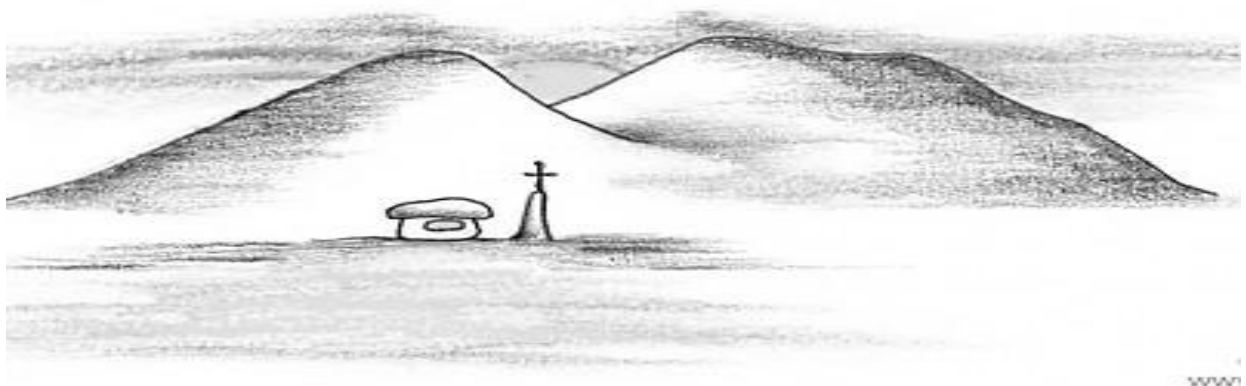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6월 공동체 미사는 6월 11일(토),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7월 공동체 미사는 허윤선(아가다) 자매님 댁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3. 최랑(로사) 자매님이 8월 1일 Bad Iburg에서 혼인성사를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7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토			브레멘 공동체
2	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교황 주일)	사목협의회	
3	월	성 토마스 사도 축일		
4	화			
5	수	연중 제13주간 수요일		
6	목		꾸리아	
7	금	소서		
8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9	일	연중 제14주일	청년 소공동체	
10	월			
11	화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12	수	초복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3	목			
14	금		2구역 소공동체	
15	토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하노버 공동체
16	일	연중 제15주일(농민 주일)		
17	월	제헌절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중복		
23	일	연중 제16주일, 대서	가족미사	
24	월			
25	화	성 야고보 사도 축일		
26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27	목		연령회	
28	금		청년회 MT	
29	토	성녀 마르타 기념일		
30	일	연중 제17주일		
31	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 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한글** ◆

발행인	박철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편집인	남궁춘배 바르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